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1호 【루게 제24734호】 주제103(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룡군상장서홍찬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식료품가공기지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모든 건물들의 외벽에 라일을 구색이 맞게 붙이니 정말 보기 좋다고,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으며 환해졌다고, 우리가 걷는 걸음이 헛되지 않고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공장구내를 감싸고있는 감나무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이 현대화됨으로써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식료품의 생산량과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으며 작업장환경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한 결과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식료품들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에서 생산한 된장을 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을 끓여 맛을 보았는데

들에 가지가 휘도록 열려있는 감알들을 보시며 땅이 꺼지게 많이 달렸구만, 현대화된 공장의 모습을 더욱 황홀하게 하는 이채로운 풍경이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화사업이 잘되였다고 평가하신 공장이 역시 다르오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와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 련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난해 5월 이곳을 돌아보면서 준 현대화과업을

훌륭히 판철하였다고, 이 공장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낳은 자랑스러운 애국적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랭동과 절임만을 하던 공장을 종합적인 식료품가공기지로 개건해주시고 우리 군인들에게 더 많은 기초식품을 안겨줄수 있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을 보여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공장을 바라

보니 장군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초식품직장, 감병이가공직장, 정미직장, 남새가공직장, 즉석쌀밥직장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고도로 정보화, 지능화된 생산 및 경영활동의 통합생산관리체계도 손색없고 자동화, 무인화, 흐름선화된 생산공정들이 불만 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로동이 그대로

기막히게 좋았다고, 이 공장의 된장맛이 더 좋다는데 자신께서 꼭 맛보시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특별한 관심속에 지난 시기 공장의 생산은 하루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땅이 정한 기준대로 현대화를 실현한데 맞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기초식품생산혁명을 일으켜주시는 장군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그러시면서 원자재보장을 비롯하여 공장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신께서 몸소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요즘은 정말 기운이 난다고, 최근에 이 공장을 비롯하여 인민군대

의 후방기지들을 먼 후날을 내다 보며 현대화함으로써 올해가 우리 군인들을 위한 후방토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진 해로 되였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료 가공공업에서도 인민군대가 당당히 앞장서나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전형 단위를 창조하여 일반화하는것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 라고, 사회의 식료공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군대의 일본 새를 따라배워 현대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야 한다고 지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료 현대화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바로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높은 민족적자존심 과 불타는 애국심에 의거하여 현대화사업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사람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은 무궁무진하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세계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높은 목표와 야심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 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몸소 일터에 찾아오시여 한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림으로써 군인들에게 갖가지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줄 충정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군민대단결의 위력 대상건설과 먹이풀 비배관리, 겨울철집짐승먹이생산 힘있게 추진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에서 선구자, 개척자의 슬기와 용맹을 펼쳐갈 불같은 결의안고 떨쳐나선 군민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군민대단결의 위력 떨치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중합된 자로에 의하면 이들은 한달동안에 송변전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계획된 29km구간의 전주조립, 여러 변전소들의 구내전주세우기 및 강철구조물조립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8 000여정보의 인공광판과 6 000여정보의 방풍림구역을 정리하고 7 000여정보의 먹이풀판에 영양액을 주었으며 1 만여의 유기질비료생산과 5만여의 겨울철집짐승먹이를 확보하였다. 또한 280여동의 살림집, 집짐승우리를 비롯한 건축물들과 도로공사도 결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중앙현장지휘부에서는 대상건설과 가을철먹이풀비배관리, 포진과 방풍림구역정리, 겨울철 집짐승먹이생산 등 시에 내밀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다. 일군들은 송변전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그리고 현지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모든 단위들

에서 살림집, 집짐승우리를 비롯한 건축물들과 도로건설을 질적으로 끝내도록 요구성을 높여 나갔다. 그리하여 전후장 어디든 군민대단결의 위력 떨치며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계에 일었다.

전력공업성려단에서 송변전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2세한 돌격전을 벌였다. 일군들은 송변전공사를 계기일에 끝내어 《마식령속도》창조자처럼 조국의 결집은 곧 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호소하면서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지역건설의 혁명적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말거전투파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폐기 있게 해나갔다. 그들은 성일군들과의 관계에 현장에서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고 결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며 작업공수들을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돌격대원들이 난관 앞에 주저를 모르고 자체의 힘으로 강행해나가는 용감무쌍한 공격기질로 송변전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그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제힘을 믿고 떨쳐나 철근공구리트전주운반을 앞세우며 세우기와 조립속도를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한달동안에 철근공구리트전주운 70여리구간에 9 000기 조립하고 여러 변전소

들의 구내에 150기를 세웠으며 강철구조물조립공사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상건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기 세계가 타올랐다.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민건설자들은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 도로건설을 질적으로 끝냈다. 철도성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우리 혁명의 년대들마다 천리마의 기상, 속도전의 불바람으로 거창한 창조와 번혁을 안어온 전선대들의 영웅적투쟁정신과 혁명적기풍을 본받아 상상력을 성과적으로 개진하고 준공식을 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 경공업성, 농업성, 대외경제성, 국가자원개발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상지도국돌격대원들에서는 계획된 살림집과 집짐승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돌격대원들이 난관 앞에 주저를 모르고 자체의 힘으로 강행해나가는 용감무쌍한 공격기질로 송변전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그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제힘을 믿고 떨쳐나 철근공구리트전주운반을 앞세우며 세우기와 조립속도를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한달동안에 철근공구리트전주운 70여리구간에 9 000기 조립하고 여러 변전소

비배관리, 겨울철집짐승먹이생산 힘있게 추진

지체없이 풀여주었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 분발해나선 돌격대원들은 말거전 대상공사파제를 계기일에 성과적으로 끝냈다.

포진전주조립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기 세계가 타올랐다. 인민봉사총구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그 앞장섰다. 이들은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자기 살림처럼 귀중히 여기며 온갖 열정을 다 바쳐, 힘겨운 일을 기쁘게 여기고, 수백명씩

살을 뱌내며나갈 마운안고 수심정보의 먹이풀판에 대한 포진머리정리를 질적으로 해냈다.

대상지도국돌격대원들은 일제계획을 높이 세우고 노력을 집중하여 돌추기, 검불같이내기를 간지켜 함으로써 먹이풀판을 꽃밭처럼 만드었다. 대외경제성 돌격대에서는 먹이풀판의 많은 면적이 경사지에 있는 조건에 맞게 전투조직을 짜고들고 완강한 돌격전을 벌여 모든 포진을 구묘있게 정리하였다. 라선시려단, 조선대양총화사, 수배향정

성, 농업성돌격대에서는 먹이풀판의 주변정리를 알맞게 하면서 배수로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

군민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대원들, 각 도려단들에서 겨울철 집짐승먹이확보에 필요한 많은 양의 먹이풀들을 생산보장하였다.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와 인민보안부려단의 지휘관들과 군민건설자들은 배두산혁명강군, 불가능을 모르는 결사대의 투쟁기풍으로 5 300여의 먹이풀을 저장기에 보강하여

말린풀과 풀질입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대상지도국, 화학공업성돌격대에서는 530여의 먹이풀을 생산하였으며 라선시려단에서도 많은 양의 풀을 거두어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질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총공격전을 벌여 6 600여의 겨울철집짐승먹이풀을 생산보장하였다. 결과 올해 세포동판에서는 3만 1 000여의 풀질입과 2만 여의 말린풀이 생산되었다.

본사기자 정영철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철도성려단에서 —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사회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중앙현장지휘부에서는 대상건설과 가을철먹이풀비배관리, 포진과 방풍림구역정리, 겨울철 집짐승먹이생산 등 시에 내밀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다. 일군들은 송변전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그리고 현지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모든 단위들

에서 살림집, 집짐승우리를 비롯한 건축물들과 도로건설을 질적으로 끝내도록 요구성을 높여 나갔다. 그리하여 전후장 어디든 군민대단결의 위력 떨치며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계에 일었다.

전력공업성려단에서 송변전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2세한 돌격전을 벌였다. 일군들은 송변전공사를 계기일에 끝내어 《마식령속도》창조자처럼 조국의 결집은 곧 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호소하면서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지역건설의 혁명적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말거전투파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폐기 있게 해나갔다. 그들은 성일군들과의 관계에 현장에서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고 결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며 작업공수들을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돌격대원들이 난관 앞에 주저를 모르고 자체의 힘으로 강행해나가는 용감무쌍한 공격기질로 송변전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그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제힘을 믿고 떨쳐나 철근공구리트전주운반을 앞세우며 세우기와 조립속도를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한달동안에 철근공구리트전주운 70여리구간에 9 000기 조립하고 여러 변전소

자기사는 고장을 락원으로

평안북도에서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자기사는 고장을 락원으로 전반기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상지도국돌격대원들은 일제계획을 높이 세우고 노력을 집중하여 돌추기, 검불같이내기를 간지켜 함으로써 먹이풀판을 꽃밭처럼 만드었다. 대외경제성 돌격대에서는 먹이풀판의 많은 면적이 경사지에 있는 조건에 맞게 전투조직을 짜고들고 완강한 돌격전을 벌여 모든 포진을 구묘있게 정리하였다. 라선시려단, 조선대양총화사, 수배향정

성, 농업성돌격대에서는 먹이풀판의 주변정리를 알맞게 하면서 배수로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

군민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대원들, 각 도려단들에서 겨울철 집짐승먹이확보에 필요한 많은 양의 먹이풀들을 생산보장하였다.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와 인민보안부려단의 지휘관들과 군민건설자들은 배두산혁명강군, 불가능을 모르는 결사대의 투쟁기풍으로 5 300여의 먹이풀을 저장기에 보강하여

말린풀과 풀질입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대상지도국, 화학공업성돌격대에서는 530여의 먹이풀을 생산하였으며 라선시려단에서도 많은 양의 풀을 거두어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질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총공격전을 벌여 6 600여의 겨울철집짐승먹이풀을 생산보장하였다. 결과 올해 세포동판에서는 3만 1 000여의 풀질입과 2만 여의 말린풀이 생산되었다.

자기사는 고장을 락원으로

평안북도에서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자기사는 고장을 락원으로 전반기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상지도국돌격대원들은 일제계획을 높이 세우고 노력을 집중하여 돌추기, 검불같이내기를 간지켜 함으로써 먹이풀판을 꽃밭처럼 만드었다. 대외경제성 돌격대에서는 먹이풀판의 많은 면적이 경사지에 있는 조건에 맞게 전투조직을 짜고들고 완강한 돌격전을 벌여 모든 포진을 구묘있게 정리하였다. 라선시려단, 조선대양총화사, 수배향정

성, 농업성돌격대에서는 먹이풀판의 주변정리를 알맞게 하면서 배수로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

군민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대원들, 각 도려단들에서 겨울철 집짐승먹이확보에 필요한 많은 양의 먹이풀들을 생산보장하였다.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와 인민보안부려단의 지휘관들과 군민건설자들은 배두산혁명강군, 불가능을 모르는 결사대의 투쟁기풍으로 5 300여의 먹이풀을 저장기에 보강하여

말린풀과 풀질입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대상지도국, 화학공업성돌격대에서는 530여의 먹이풀을 생산하였으며 라선시려단에서도 많은 양의 풀을 거두어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질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총공격전을 벌여 6 600여의 겨울철집짐승먹이풀을 생산보장하였다. 결과 올해 세포동판에서는 3만 1 000여의 풀질입과 2만 여의 말린풀이 생산되었다.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계에 몰아치고있는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혁신적성공들이 연일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끝낼 열의에 충만하여 돌격전을 벌이며 힘찬 투쟁을 벌려온 배두산선군청년돌격대 방장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배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많은 공사파제수행에서 면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현장연합지휘부에서는 1호발전소 건설을 앞세우며, 2호발전소건설과 함께 3호발전소 건설을 립계획의 방법으로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있다.

3호발전소건설을 맡은 방장도려단 지휘부에서는 물길공공

3호발전소물길공 성과적으로 관통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방장도려단에서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앞세우며, 2호발전소건설과 함께 3호발전소 건설을 립계획의 방법으로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있다.

3호발전소건설을 맡은 방장도려단 지휘부에서는 물길공공

배두산선군청년돌격대 방장도려단에서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앞세우며, 2호발전소건설과 함께 3호발전소 건설을 립계획의 방법으로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있다.

3호발전소건설을 맡은 방장도려단 지휘부에서는 물길공공

조선속도창조로 들끓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계에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전투에 전일한 군민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총돌격전을 벌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4개 호동의 살림집공공사를 끝내었다.

이 나날에 군민건설자들은 8천㎡에 달하는 살림집기초 공판과 5만 7 000㎡의 기초 및 골조공판기초기공을 벌여 번쩍 나게 해제기는 혁명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이들은 돌격전의 복소리를 높이 울리며 내외부미장공사에서 면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의 기본인무를 수행하면서 도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과 주요전구마다에서 불파기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약을 모르고 언제나 앞장서서야 합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당에서 정해진 시간애,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미래과학자거리를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우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사의 주타격방향인 살림집공공사에 력량과 기세를 총집중하였다.

지휘관들은 들끓는 건설전투장마다에서 화선선동, 직관선동 등 화선식정지사업으로 양양된 군민대단결의 정신을 총폭발시키며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의

고 내외부미장에 본격적으로 달구었다.

화약이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공사를 밀고나가기 위한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건설공사의 정신을 체질화한 군민건설자들은 공간간 편제를 잘 맞물려 미장작업과제물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골조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부대, 구분별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공판공판건설장에서 높은 건설속도를 창조하였다.

시간을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군민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애국열의에 의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개천탄광에서

탄광의 일군들은 앞선 재탄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일제계획을 1.5배이상 수행함으로써 경적인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탄광적인 석탄생산의 큰 몫을 맡은 서재경 일군들과 탄부들도 사회주의경쟁을 치열하게 벌여 날마다 석탄산을 높이 쌓아나갔다.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치열한 증산돌격전을 벌인 결과 경의 모든 재탄중대들이 10월 19일까지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전진2개과 종합중대의 탄부들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을 지켜섰다는 남다른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말장마다에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여 석탄생산

에서 새 기록,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양양된 열의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는 속에 지난 8월 말 펼쳐진 동맹의 탄부들이 연간 석탄생산목표를 돌파한데 이어 10월초까지 전진2개, 서재경, 종합중대가 련이었던 연간계획완수의 승전고를 울리었다.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10월달까지 연간 석탄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을 지켜섰다는 남다른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말장마다에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여 석탄생산

에서 새 기록,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양양된 열의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는 속에 지난 8월 말 펼쳐진 동맹의 탄부들이 연간 석탄생산목표를 돌파한데 이어 10월초까지 전진2개, 서재경, 종합중대가 련이었던 연간계획완수의 승전고를 울리었다.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10월달까지 연간 석탄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을 지켜섰다는 남다른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말장마다에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여 석탄생산

경애하는 원수님의 피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2호발전소 1호발전기조립공사에서 면밀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에서 조선속도창조열풍을 세세하게 일으키도록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발전기조립공사 힘있게 추진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피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2호발전소 1호발전기조립공사에서 면밀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에서 조선속도창조열풍을 세세하게 일으키도록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발전기조립공사 힘있게 추진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피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2호발전소 1호발전기조립공사에서 면밀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에서 조선속도창조열풍을 세세하게 일으키도록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발전기조립공사 힘있게 추진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피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2호발전소 1호발전기조립공사에서 면밀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에서 조선속도창조열풍을 세세하게 일으키도록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연 풍 호 기 습 에 울 러 퍼 지 는 행 복 의 노 래 소 리

연 풍 과 학 자 휴 양 소 에 서 첫 기 휴 양 시 작

【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어머니당이 우리 과학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금방석, 연풍 과학자휴양소에서 16일 첫기 휴양이 시작되었다.

과학자들을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 주시는 것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한량없는 은정이 뜨겁게 어려있는 연풍 호기습은 이날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사상이 펼친 최한한 선경에서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된 과학자들의 가슴가슴은 오늘의 이 특권과 행복을 안겨 주신 것에 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휴양생들이 도착하자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반갑게 맞이하였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여온 영광의 날에 가슴속의 소중한 꿈으로, 리상으로 간직된 황홀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현실로 펼쳐주시는 것에 하는 원수님의 대대같은 사랑과 믿음은 그들이 수놓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연풍호의 자연풍치와 어울리는 멋진 건축미를 자랑하며 어서 오라 부르는데 휴양소의 정경은 휴양생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봉사원들의 친절 한 안내를 받으며 고급가구들과 지열방난방제계를 갖춘 정갈하고 아늑한 휴양각에 들어선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따뜻한 어머니정에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이래 과학자의 참된 삶을 누려가는 궁지와 영예를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삼가 인사를 드렸다.

푸른 물결 출렁이는 연풍호와 울창한 수림의 자연미를 한껏 맛볼수 있도록 특색있게 형성된 외관을 지나 종합봉사소에 들어선 휴양생들은 과학중

시, 인재중시의 위대한 정지로 행복의 선경들을 편이여 마련 해주시며 온 한해를 과학자들을 위한 애로 빛내여주시는 한없는 그 사랑을 더욱 배부로 절감하였다.

실내물놀이장의 맑은 물에 몸을 푹 잠그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휴양생들의 웃음소리와 다용도야의 운동장에 펼쳐진 체육경기들은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식량과학연구원 연구사 랑향찬은 이처럼 훌륭한 곳에서 휴양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쌓였던 피로가 순간에 풀린다.

내가 맡은 연구과제의 실마리도 여기서 찾았다. 벌써부터 온몸에 새 힘이 넘쳐나는데 동무들과 한번 토론해보려고 한다.

레일은 낚시질을 한번 해보고 싶다. 누가 더 많이 잡는가 내기를 걸겠다.

휴양생들은 한쪽의 그림같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휴양소의 전경과 연풍호의 풍치를 사진기에 담고 이곳 종업원들이 준비한 축하공연도 관람하였다.

휴양생들을 위해 성의껏 마련된 은경당은 연회상은 과학자들의 심금을 또다시 울렸다.

갯가지 영양가 높은 음식들로 푸짐한 식탁을 마주한 그들은 휴양생들의 식생활문제까지 해

어려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다심한 사랑에 가슴뜨거워진 뜻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은 세상이 부러울게 행복의 상상봉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것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로동당 만세소리가 그들의 심장속깊이에서 뜨겁게 울려나왔다.

111호체각소 연구사인 고경민은 자기의 마음속생각을 이렇게 터놓았다.

과학자들의 존엄이 돈에 의해 통락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현실이 우리앞에 펼쳐졌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금방석에 우리 과학자들을 앉혀 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 있어

우리는 부러울것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잔디연구부원 연구사 리경철은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킬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잔디 육종과 재배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지난 기간 과학연구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나누며 산보길을 거니는 로과학자들과 휴양의 첫 하루를 한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새겨안으며 이야가움을 피우는 함흥분원의 가수, 임진순박사 부부.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1월의 맹장 추위도 삼복될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과학자들이 마음껏 휴식할수 있는 휴양소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견고 결의한 김정은원수님의 헌신의 로고를 한생토록 잊지 않고 과학연구사업의 앞날 열매로 부강조국을 건설해나갈 혁명열, 투쟁열이 새차게 고동쳤다.

연풍호기습의 휴양시설에서 과학자들은 흥겨운 유희오락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휴양의 첫 밤을 즐겁게 보냈다.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열렬한 찬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무궁토록 빛내어 갈 신념의 노래소리가 불빛밝은 창가마다에서 끝없이 울려나왔다.



우리 나라 검은주전수

녀자력기 75kg 급경기에서 2개의 금메달 쟁취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대대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며 편일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우리 나라의 검은주전수는 15일에는 녀자 75kg급경기에서 2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선수권을 보유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영예를 또다시 떨치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에 있는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좋은 전적을 가지고있다.

필승의 신심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지니고 경기에 출전한 그는 첫시작부터 자기의 특기인 폭발적인 구간경기에 의한 빠른 주기로 구간봉을 힘있게 들어올렸다.

김은주전수는 157kg을 들어올려 추켜올리기종목에서 1등을 하였으며 종합 1위로 2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의 경기성적을 많은 전문가들과 관중들이 열렬한 박수로 축하해주었다.

한편 립정심전수는 이날 녀자력기 75kg급경기 추켜올리기종목에서 은메달을 받았다.

어버이의 다심한 사랑 길이 빛내 이리

*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의 평양견학 *

축복 받은 어머니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요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본정치이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평양에 왔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키우면서 언제 한번 자모들의 따뜻한 인사, 학부형들의 고마움의 인사를 받아본적이 없이 말그대로 목욕히 바치는 것뿐이었던 그들이 위대한 어머니의 크나큰 축복을 받으며 평양에 왔다.

어머니날을 맞으며 온 나라의 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을 평양에 불러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해주신 것에 하는 원수님, 친어머니의 다심한 그 은정에 많은 사람들이 복종의 하나로 자식복을 쫓는다.

훌륭한 자식을 둔 어머니들의 긍지는 얼마나 큰것인가.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세운 영웅의 어머니, 세계무대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인민체육인의 어머니, 가치있는 발명으로부터 나라의 번영에 이바지한 과학자의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이야말로 자식 복이 있는 어머니들이다.

그런 어머니들속에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있다.

평양시의 바는 곳마다 펼쳐진 한영의 바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려와 축하하는 인사들, 인사들...

그러나 그때까지도 몰랐다. 자기가 얼마나 큰 자식복을 누리고있는지.

어머니날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슴가득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만 받아안고 그들은 하나같이 말하였다.

《원아들을 맡아 키운것뿐

있는 함흥애육원 심란희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선생님이라는 부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오 원아들때문에 언제 한번 마음 편히 휴식을 해본적이 없었던 신의주육아원 보육원들은 평양 견학이 조직된다는 소식을 듣고 약속하였다. 제일 고운 치마저고리를 가지고가서 어머니날에 우리도 멋지게 차려입고 평양의 어머니들과 내기를 해보고자. 그래서 부신들을 피웠다. 경쟁적으로 고운 치마저고리를 마련 하느라고.

그러던 그들이 어머니날의 아침 뜻밖의 소식이 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어머니날 아침 녀성회편에는

눈물바다가 펼쳐졌다. 심장으로 애지는 감사의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서 터져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녕 그들이 가슴 한가득 받아안은 선물은 뜻깊은 어머니날에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의 어머니들에게 보내주신 원수님의 축복이었다.

모든 보육원, 교양원들이 원아들의 진정한 부모, 훌륭한 교육자, 직업적인 혁명가가 되기를 바라는 간곡한 당부였다.

온 나라 원아들의 어머니들의 마음이 한껏 넓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아들딸들의 어머니가 된 궁지가 가슴마다 차오르고 사랑과 정을 다해 원아들을 훌륭히 키워줄 맹세가 그들의 심장을 불태웠다.

승 철 진

당의 부름에 높은 실적으로 화답하리

2. 8직동청년단광 9쟁 일군들과 탄부들

직동의 탄전들이 용암마당 뚫어 번지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리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직동의 탄부들은 더 높은 석탄산성사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불철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편일 성과를 올리고있다.

2. 8직동청년단광 9쟁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수천척지하마당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목숨까지 헌신투하고있는 탄부들을 로동계급의 핵심부대, 나라의 보배로 굳게 믿고 끝없이 아끼고있으며 석탄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해 나갈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어느날 이른새벽,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비문이 이웃로 떠날줄 모르는 탄부들이었다.

9쟁 굴진3소대 굴진공들이었다.

동지들의 편지를 기본 마음으로 받아보았다고, 우리 당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고 하신 것에 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

파 크나큰 믿음이 넘쳐흐르는 친필을 한자한자 더듬어보는 굴진공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이런 맹세가 불타올랐다.

《이 몸이 쟁취 가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이 석탄산은 높이 쌓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를 받들어 실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굴진3소대 굴진공들은 교대작업에 진입하였다. 굴진전투장에서는 말그대로 백열전기가 벌어졌다.

련속전공 련속발파의 동음이 경각장을 뒤흔들었다. 착암기소리 그칠새없이 울려왔다.

첫 발파가 끝나자 부소대장 류철남동무는 또다시 착암기를 불어쌌다.

《동무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맙시다. 오늘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막장을 떠나지 맙시다.》

얼마전 어느날 이른새벽, 동무들을 비롯한 굴진공들이 그의 목소리에 호응해나서며 버럭을 가득 실은 팔자에 어깨를 들이대었다.

두번째 발파가 진행된 후 가스 가 빠져진 굴진공들은 막장으로 달려갔다.

그날 굴진3소대 굴진공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드노이 무라

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며 하루전투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이런 불같은 날파 날이 흘렀다.

그들만이 아니다.

9쟁 어디서나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경쟁 한승한, 분초급방비서 김원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들끓는 경각장에서 생산조작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면서 화산식정지사업을 박력있게 벌려 탄부들의 양양된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들끓는 막장에 들어와 탄부들과 함께 어려운 고비를 헤치면서 석탄산성에서 걸린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도 세워주면서 탄부들의 생활을 친 부모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봐주고있는 탄광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은 막장안에 혁신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게 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9쟁에서는 세기중, 세 기류이 편이여 창조되고있다.

《당의 부름에 높은 실적으로 화답하리!》

이것은 9쟁만이 아닌 직동의 탄전들 그 어디에서 울려나오는 탄부들의 심장의 분출이다.

편사기자 채 인 철

한생 잊지 못할 추억들

즐거워 평양견학의 첫날 보육원, 교양원들은 흥겨우려 한 대동강기슭에 솟아난 궁궐 같은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참관하였다. 전설속의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육아원, 애육원의 여미꽃을 돌아보며 반이안은 감동도 겹치지만 그들의 가슴을 더욱 울린것은 원아들이 펼친 공연대였다.

원수님 지어주신 우리 집이 제일이라고,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이시라고 목청 높여 노래하는 원아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뜨거워졌다. 흥했다. 원아들이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르자 모든 참관자들은 줄지어 춤을 추고 함께 박수를 치며 합창하였다. 출연자와 참관자가 하나가 되어 목메어 노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는 은성속에 나라의 역군이 될 훌륭한 자식들을 둔 부반은 어머니들이다. 자식복이 있는 어머니들이다.

리 신 향

미림승마구락부를 참관한 날 저녁 보육원, 교양원들이 사산사치녀들이 찾아왔다. 참관자들이 승마구락부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을 가지고 왔던것이다.

각 도의 보육원들과 교양원들이 달려나와 고마움의 인사를 나누며 저마다 사진을 들고 시작하였다.

앞을 다투어 손을 내미는 그들에게 사진은 찾아주던 처녀들은 그만애야 사진을 사들여기 시작했다. 모두가 사진을 타고 찍은 독사친들인 데 하나같이 호참하게 웃는 얼굴들이어서 선포 가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행복을 받아안고 모두의 얼굴에 만물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니 누구를 닮았더라.

그날 저녁 리관에서는 뒤늦게야 사진을 되찾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레오레 울려 퍼졌다.

편사기자

